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박현숙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Suicide ·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Park, Hyun Sook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tegrated suicide ·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Another purpose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integrated suicide · violence prevention program on self-esteem, parent-child communication, agg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Methods:** The study employed a quasi -experimental design. Participants for the study were high school students, 24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5 in the control group. Data was analyzed by using the SPSSWIN. 11.5 program with χ^2 test, t-test, and 2-way ANOVA. **Results:** Participants in the integrated suicide · violence prevention program reported increased self-esteem scores, whic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control group. Participants in the integrated suicide · violence prevention program reported decreased agg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scores, whic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integrated suicide · violence preven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self-esteem and decreasing agg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for adolescents. Therefore, this approach is recommended as the integrated suicide · violence prevention strategy for adolescents.

Key words: Suicide, Violence, Adolescenc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Conner, Duberstein, Conwell, & Caine, 2003). 통합적 접근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청소년의 자살·폭력과 관련된 공통된 보호요인 강화를 통해 위험요인을 감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의 보호요인이라

는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소시켜주고 완화시키며, 개인의 위험요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요인을 말하며, 청소년의 위험요인이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이나 개인의 특성 중 발달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Sim & Kim, 2005).

보호요인 강화에 초점을 둔 접근은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병리적 증상이나 부적응 상태에 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을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긍정심리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주요어 : 자살, 폭력, 청소년

*본 연구는 2006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6-068-E00096).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n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6-068-E00096).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Hyun Sook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eo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7 Fax: 82-53-621-4106 E-mail: parkhs@cu.ac.kr

투고일 : 2008년 5월 2일 심사외뢰일 : 2008년 5월 4일 게재확정일 : 2008년 7월 4일

긍정적인 발달의 현상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으며(Simnton & Baumeister, 2005), 긍정심리학에서의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이 위협요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위협요소의 영향을 완충해주는 보호요인의 강화에 있다.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가장 높은 예측력을 가진 심리적 보호요인은 자아존중감(Hong, 2004; Park, Schepp, Jang, & Koo, 2006)과 가족 의사소통(Lee, H. W., 2006)을 들 수 있다. 폭력행동에 높은 예측력을 가진 보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지지(Lee, 2002; Smocek et al., 2000)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청소년의 자살사고와 폭력행동의 공통된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청소년에 있어서의 자아존중감은 적응을 돕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집단상담을 통해서 증가될 수 있으며(Choi, 2004),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증가될 수 있다(Choi & Yang, 2005).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전체 평균 효과 크기를 살펴본 결과 0.9530으로 큰 효과크기가 있었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성인기에 비해 매우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어서(Choi, 2004), 청소년기 동안의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자아존중감 증진은 시기적절하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과 같은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보호요인에 초점을 둔 토론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청소년의 대응능력을 모델링할 수 있으며, 학생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 행동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공격성을 들 수 있다(Oh, 2005; Park, Koo, & Schepp, 2005; Smocek et al., 2000). 청소년의 공격성은 자신에게로 향할 때 자살행위로 이어질 수 있지만, 타인으로 향할 때 폭력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Plutchik, 1995).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 예방에 있어서 공격성의 감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Park, 2007),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할 수 있으므로(Kim, 2004),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Ha & Edwards, 2004),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적응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자살사고가 반드시 자살시도를 이끌지는 않지만,

청소년의 자살사고는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측 지표가 될 수 있다(Matsuishi et al., 2005).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사고는 자살행동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청소년의 폭력행동에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Lubell & Vetter, 2005), 폭력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Park, 2007) 폭력행동의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의 공통이고 대표적인 보호요인은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들 수 있으며, 주요 위험요인은 공격성과 자살사고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향상으로 인해 공격성과 자살사고가 감소될 수 있을 있을 때, 보호요인 강화를 통한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둔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향상하고, 공격성과 자살사고를 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자살과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효과적일 때 청소년의 자살·폭력 예방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학교중심 개입전략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첫째,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둘째,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셋째,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넷째,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

3. 연구 가설

첫째,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증가될 것이다.

둘째,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증가될 것이다.

셋째,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공격성이 감소될 것이다.

넷째,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사고가 감소될 것이다.

4. 이론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Plutchik (1995)의 모형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이론적 기틀을 도출하였다. Plutchik (1995)은 청소년의 주요 문제인 자살과 폭력은 청소년이 직면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frustration)로부터 유발되며, 이러한 좌절은 공격적 충동으로 이어져 청소년 개인이나 가족과 지역사회 요인에 따라 청소년 자신으로 향하는 자살행위와 타인으로 향하는 폭력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자살·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Conner, Duberstein, Conwell, & Caine, 2003; Lubell & Vetter, 200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이 직면하는 스트레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공격성과 자살사고와 같은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의 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Lee, 2002; Park, 2007)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격성 및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유사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시기(사전검사, 사후검사)와 집단(실험집단, 통제집단)이며, 집단은 집단 간 변인이고, 시기는 집단 내 변인이며, 종속변인은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격성 및 자살사고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의 IRB 승인을 받은 후 D시에 소재하는 유사한 환경을 가진 2개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의 동의를 구하고 각 학교의 상담교사의 협조를 받아 2007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학년생 중 윤리적 측면을 보장함을 전제로 하여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서명 동의한 자료 다음 기준에

적합한 49명의 청소년이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교사가 외현적 혹은 내재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둘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자

셋째, 교내 다른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집단 프로그램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2인이 동일하게 2그룹의 실험집단을 운영하였으며, 집단의 배분은 소모임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담교사가 의뢰한 대상자 중 일부를 실험군으로 배정하고, 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상자를 짝짓기하여 대조군으로 할당하였다.

대상자 수는 유의수준 .05와 80%의 power를 기준으로 필요한 대상자 수는 각 그룹당 25명이었다(Borenstein, Rothstein, & Cohen, 2001).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에서 실험군 25명, 대조군 26명이 선정되었으며, 사후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24, 대조군 25으로 총 49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실험군 탈락자는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는 이유로 탈락하였고, 대조군 탈락자는 개인적 사유로 사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3. 중재 프로그램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문헌고찰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자살·폭력과 관련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자살사고·폭력행동과 관련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Park, 2007), 청소년의 요구도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1)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적용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소년의 자살·폭력 예방을 위해 보호요인을 향상시키고 위험요인을 감소하는데 있다. 문헌고찰(Lee, 2002; Lee, H. W., 2006; Park, Koo, & Schepp, 2005; Smochek et al., 2000)과 경험적 검증(Park, 2007)을 통해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의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주요 위험요인으로 공격성과 자살사고를 도출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청소년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적합한 중재 방안, 개입 시간 및 상담 방법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였다.

기존에 실시되어온 청소년의 자살·폭력 관련 예방 프로그램과

교육은 대부분 인지행동모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특수한 문제나 대상에 따라 적합한 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Beautrais, 2002)이 집단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의 구성은 집단상담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국내 집단상담 성과의 정도를 종합·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은 현실치료와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Choi, 2004)를 기반으로 하여, 현실요법과 인지·행동적 접근에 기초한 인지 재구조화, 역할놀이, Video를 이용한 의사소통 향상 등의 기법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도입(1회기), 자기이해 및 자기존중(2-9회기), 의사소통(10-11회기) 및 종결(12회기)로 구분되며, 총 12회기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적 요소와 지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매 회기마다 주제에 대한 강의(5-10분), 상담 도구를 이용한 구체적인 활동(40-50분), 활동에 대한 평가(5-10분)로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흥미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시청각 자료 및 게임을 활용하였다(Table 1).

4.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Jeon (1974)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개발된 척도는 청소년의 자아가치감을 측정하는데 타당하다고(Rosenberg, 1965) 보고된 바 있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

Table 1. Outlines of Integrated Suicide · Violence Prevention Program

| Session | Title | Contents |
|---------|----------------------------------|---|
| 1 | Orientation of the progra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e program objectives and process • Discuss general cautions and rules • Conduct pre-test • Who am I? |
| 2 | Basic ne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five basic needs: power, love & belonging, freedom, fun, survival • What do you want? |
| 3 | Happiness and choice of behavio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covering human happiness • Understanding pre-behavior • Effective way to meet our need • What are you doing to get what you want? |
| 4 | Want and do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 what you are doing, helping you get what you want? • What are you prepared to do differently that will take you in the direction you want to go? |
| 5 | Choice of effective behavio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of choice of behavior and responsibility • How does your behavior affect another person? • What is your life plan? |
| 6 | My strength and your strengt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laiming a positive sense of self • Finding self-worth • Enhancing friends' strength |
| 7 | My posi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ding your position at this point • Considering change and choosing a life goal • Deciding what good things will happen if you make a life change |
| 8 | Emotion and though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 and thought • Transforming negative emotions and thoughts |
| 9 | My value and our valu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entifying personal values • Promoting moral values |
| 10 | Active listen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of active listening • Improving listening skills |
| 11 | Influence and empath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the different needs of persons • Understanding another person's perspective • Understanding of empathy |
| 12 | Program evalu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ring benefits of the program • Conduct post-test |

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4$ 이었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Olson 등(1982)이 개발하고 Min (1991)이 번안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도구(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사용하였다. PACI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질을 평가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부정적인 의사소통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PACI는 1점에서 5점까지 Likert typ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Min (199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3) 공격성

공격성은 Park (1998)이 개발한 공격성 척도 4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공격성 척도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에 타당하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Park, 1998),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4$ 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5$ 이었다.

4) 자살사고

자살사고는 Reynolds (1987)의 자살사고 질문지(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Shin (1992)이 번안한 척도 3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의 7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 (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96$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7$ 이었다.

5. 연구 절차

1) 소그룹 운영자 모임

프로그램 진행의 일관성을 위해 1명의 연구원과 2명의 연구보조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집단 상담을 다년간 경험하였으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본적인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그룹 운영 시 일관성 있게 반응하기 위해 사전에 만나서 토의를 하였고, 일관성 있는 그룹 운영을 위해 함께 평가하였다.

2) 자료 수집 절차

대상자는 2개의 고등학교의 상담교사의 협조로 연구기준에 적

합한 청소년의 명단을 확보하고, 연구의 목적, 참여의 자발성, 정보의 비밀유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만 둘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 목적에만 이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설문지 기입 후 봉투에 넣어 밀봉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 모두에게 서면 동의를 받고 실험군에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대조군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첫 회기에 실험군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실험군과 동일한 시기에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조사는 연구보조원이 대상자에게 설문지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모임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었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양측 검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분류형 자료의 경우는 χ^2 로, 연속형 자료의 경우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중재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격성 및 자살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며, 이 중 남학생이 49%, 여학생이 51%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38.8%,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62.2%이었으며, 경제적 상태가 중위인 학생이 63.3%, 하위인 학생이 36.7%이었고, 부모가 이혼한 학생이 26.5%이었고, 이혼하지 않은 학생이 73.5%이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성별, 종교유무, 경제상태 및 부모이혼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2)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격성 및 자살사고에 대한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격성 및 자살 사고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Table 3과 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격성 및 자살사고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격성 및 자살사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N=49)

| Variables/ categories | Total (n=49) | Experimental group (n=24) | Control group (n=25) | χ^2 | p |
|--------------------------|-----------------|---------------------------------|----------------------------|----------|------|
| | n (%) | n (%) | n (%) | | |
| Gender | | | | | |
| Male | 24 (49.0) | 12 (24.5) | 12 (24.5) | 0.02 | .889 |
| Female | 25 (51.0) | 12 (24.5) | 13 (26.5) | | |
| Religion | | | | | |
| Yes | 19 (38.8) | 12 (24.5) | 7 (14.3) | 2.50 | .148 |
| No | 30 (61.2) | 12 (24.5) | 18 (36.7) | | |
| Economic status | | | | | |
| Middle | 31 (63.3) | 16 (32.7) | 15 (30.6) | 0.23 | .769 |
| Low | 18 (36.7) | 8 (16.3) | 10 (20.4) | | |
| Parental divorce | | | | | |
| Yes | 13 (26.5) | 7 (14.3) | 6 (12.2) | 0.17 | .754 |
| No | 36 (73.5) | 17 (34.7) | 19 (38.8) | | |

자아존중감은 실험집단의 경우는 사전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상승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는 반대로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를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 집단 간 주 효과(F=1.03, p=.31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검사시기 간(F=4.08, p=.049), 집단×검사시기의 상호작용 효과(F=4.39, p=.04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실험집단의 경우는 사전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상승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는 반대로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를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 집단 간 주 효과(F=0.07, p=.788)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검사시기 간(F=0.085, p=.306), 집단×검사시기의 상호작용 효과(F= 2.09, p=.15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Self-Esteem, Parent-Child Communication, Agg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for Adolescence (N=49)

| Variables | Experimental group (n=24) | Control group (n=25) | t | p |
|----------------------------|---------------------------------|----------------------------|------|------|
| | Mean (SD) | Mean (SD) | | |
| Self-esteem | 25.50 (4.55) | 25.64 (3.43) | 0.12 | .903 |
| Parent-child communication | 60.08 (12.56) | 60.84 (9.14) | 0.24 | .810 |
| Aggression | 59.04 (10.79) | 58.72 (9.13) | 0.11 | .911 |
| Suicidal ideation | 37.17 (12.32) | 36.88 (10.56) | 0.09 | .931 |

Table 4. Mean and ANOVA of Self-Esteem, Parent-Child Communication, Agg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for Adolescence according to Treatment (N=49)

| Variables | Time | Experimental group (n=24) | Control group (n=25) | Source | F | p |
|----------------------------|------|------------------------------|-------------------------|--------|------|-------|
| | | Mean (SD) | Mean (SD) | | | |
| Self-esteem | Pre | 25.50 (4.55) | 25.64 (3.43) | Group | 1.03 | .316 |
| | Post | 27.67 (3.52) | 25.60 (3.62) | Time | 4.08 | .049* |
| | | | | G×T | 4.39 | .042* |
| Parent-child communication | Pre | 60.08 (12.56) | 60.84 (9.14) | Group | 0.07 | .788 |
| | Post | 62.63 (11.73) | 60.28 (10.13) | Time | 0.85 | .306 |
| | | | | G×T | 2.09 | .155 |
| Aggression | Pre | 59.04 (10.79) | 58.72 (9.13) | Group | 0.75 | .390 |
| | Post | 54.50 (10.27) | 59.20 (8.87) | Time | 2.83 | .099 |
| | | | | G×T | 4.33 | .043* |
| Suicidal ideation | Pre | 37.17 (12.32) | 36.88 (10.56) | Group | 0.43 | .514 |
| | Post | 32.46 (10.56) | 36.72 (11.47) | Time | 4.75 | .034* |
| | | | | G×T | 4.14 | .047* |

*p<.05.

제2가설은 기각되었다.

공격성은 실험집단의 경우는 사전보다 사후검사가 하락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는 반대로 사후검사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격성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주 효과($F=0.75, p=.390$), 검사시기 간($F=2.83, p=.099$)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집단×검사시기의 상호작용 효과($F=4.33, p=.04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자살사고는 실험집단의 경우는 사전보다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하강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도 사후검사에서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살사고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 집단 간 주 효과($F=0.43, p=.51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검사시기 간($F=4.75, p=.034$), 집단×검사시기의 상호작용 효과($F=4.14, p=.04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제4가설은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둔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향상과 공격성과 자살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먼저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보호요인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것이다.'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적용된 바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본 연구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현실요법 기법이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Lee, 2006; Lee, Choi, & Kim, 2002)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다고 믿는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집단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증진될 수 있다는 Choi (200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둔 다양한 학교기반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사후검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높아질 것이다.'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에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회기가 2회기로 제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도 부분적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회기를 늘린다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향상 여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위협요인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공격성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사후검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공격성이 낮아질 것이다.'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Park,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친화적 행동을 장려하여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Ha & Edwards, 2004)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환경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친화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 향상과 자아존중감 개발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자살사고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사후검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사고가 낮아질 것이다.'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Park, 2007)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의 보호요인이 스트레스로부터 완충역할을 하여 위협요인을 감소할 수 있다는 Lee (2002)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이 청소년의 자살사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보호요인과 위협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요인 중 자아존중감 증가와 위협요인 중 공격성과 자살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소시켜주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호요인 강화에 초점을 둔 청소년의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적개심과 자살사고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학교현장에서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보호요인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중심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호요인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학교현장에서 청소년의 문제 행동 감소를 위해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타당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을 위한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한층 더 활성화되는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향상에 초점을 둔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가와 공격성과 자살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기간은 2007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며, 연구 대상은 일 도시에 소재하는 2개의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서면 동의한 총 49명이며, 이 중 실험군은 24명, 대조군은 25명이었다. 연구 설계는 유사 실험 연구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실험설계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집단과 검사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F=4.39$, $p=.042$)가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는 집단과 검사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F=2.09$, $p=.155$).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집단과 검사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F=4.33$, $p=.043$)가 나타났으며, 자살사고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는 집단과 검사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F=4.14$, $p=.047$)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 증가에 효과가 있었으나,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가에는 효과가 없었으며, 위험요인인 공격성과 자살사

고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같은 보호요인 증가에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공격성과 자살사고와 같은 위험요인 감소에 효과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 중심의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한된 보호요인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폭력과 관련된 공통된 보호요인을 탐색하여 보다 다양한 보호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대상을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청소년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 표집하지 못했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처음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들 수 있다.

REFERENCES

- Beautrais, A. L. (2002). Gender issues in youth suicidal behavior. *Emergency Medicine*, 14, 35-42.
- Borenstein, M., Rothstein, H., & Cohen, J. (2001). *Power and precision: A computer program for statistical power analysis confidence interval*. Englewood, NJ: Boostat.
- Choi, J. S. (2004). *A meta analysis of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on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Cheongwon.
- Choi, T. S., & Yang, J. N. (2005).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Inter · Intr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Journal of Dongshin University*, 51, 1-18.
- Conner, K., Duberstein, P., Conwell, Y., & Caine, E. (2003). Reactive aggression and suicide theory and evidence. *Aggression of Violent Behavior*, 8, 413-432.
- Ha, Y. H., & Edwards, C. P. (2004). Causal relationships of adolescent aggression: Empathy, prosocial behavior,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 121-132.
- Hong, J. A.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9-129.
- Kim, H. S. (2004). Development of a sublimation program for Kore-

- an adolescents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 81-92.
- Lee, H. W. (2006). *Research for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teenager's suicide ide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J. M. (2006). The effect of group counselling program of reality therapy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lability,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adolescents. *Adolescence Research*, 13, 127-150.
- Lee, S. O. (2002). *A study on the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ve factors affecting to the degree of school violence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S. Y., Choi, W. G., & Kim, C. K. (2002). Effectiveness of reality therapy-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reduction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dolescence Research*, 12, 1411-163.
- Lubell, K. M., & Vetter, J. B. (2005). Suicide and youth violence prevention: The promise of an integrated approach. *Aggression of Violent Behavior*, 11, 167-175.
- Matsuishi, K., Kitamura, N., Sato, M., Nagai, K., Huh, S. Y., Ariyoshi, K., et al. (2005). Change of suicidal ideation induced by suicidal attempt.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9, 599-604.
- Min, H. Y. (199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delinquent's perception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Oh, S. H. (2005). *The effect of anger control training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 Olson, D. G.,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1982). *Family inventories*. Minnesota,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ark, H. S. (2007). Validation of path model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violent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835-843.
- Park, H. S., Koo, H. Y., & Schepp, K. G. (2005).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for adolescents by gend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1433-1442.
- Park, H. S., Schepp, K. G., Jang, E. H., & Koo, H. Y. (2006).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by gender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76, 181-188.
- Park, J. M. (1998). *Relationship among narcissistic propensity, dominance, and hostility of the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lutchik, M. (1995). Outward and inward directed aggressiveness: The interaction between violence and suicidality. *Pharmacopsychiatry*, 28(2), 47-57.
- Reynolds, W. M. (1987).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E.,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 410-421.
- Shin, M. S. (1992). *An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im, M. Y., & Kim, K. H. (2005).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of Korean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 of sex and developmental period.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 313-325.
- Simnton, D. K., & Baumeister, R. F. (2005). Positive psychology at the summit. *Psychological Review*, 9(2), 99-103.
- Smocek, M. R., Oblaczynski, C., Lauck, D. L., Green, P. T., Early, J. A., & Smity, J. E. (2000). Interventions for risk for suicidal and risk for violence. *Nursing Diagnosis*, 11(2), 60-68.